

W 변호사, 김재철에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고

“일본에 있지만 많은 정보 축적하고 있다”

김재철이 남편 W 변호사의 6개월 질의에 대해 무려 닷새가 지나도록 단 한 마디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남편 W 변호사에게 의처증이 있는 것 같다’고 적반하장 격의 망언을 내뱉은 것 외에 ‘작년 추석연휴 당시 일본 숙박 건’의 구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김재철의 일간지 인터뷰는 W 변호사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며 인격모독이다. 한 가정을 엄청난 분란에 빠뜨려놓은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언행이다.

W 변호사, “누구보다 빨리, 많이 알고 있다”

김재철의 일간지 인터뷰를 검토한 W 변호사는 김재철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W 변호사는 자신이 “일본에 있지만 한국내의 누구보다 지금의 상황을 빨리 그리고 많이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에게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준엄한 메시지로 보인다.

일방적 인터뷰 게재 일간지에도 강한 유감

W 변호사는 김재철의 망발을 여과 없이 담은 일간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송 등으로 바쁜 일정이 있어 이메일 등의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대응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W 변호사는 “한국의 신문이 나에게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처증 등의) 기사를 쓰는데 대해 해당 신문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W 변호사는 “내가 한국말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의 기사를 썼다면 진실로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갈팡질팡 김재철, 휴가 중 방문진 보고 참석

W 변호사의 ‘문방위 서한’ 공개 이후 김재철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일간지 인터뷰 외에도 가관의 연속이다. 김재철은 돌연 예정에 없던 휴가를 어제(30일)부터 가겠다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휴가 일정을 비서실에 통보했다. 김재철은 그러나 휴가 첫 날인 어제 회사에 출근한 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작년 경영평가 자리에 참석했다. 경영평가 자리에는 김재철을 비롯한 MBC 임원 전원과 경영평가 소위를 맡은 이사들이 참석했다. 김재우 이사장은 읊서버 자격으

로 자리를 함께 했다.

방문진 일정 모르고 휴가 가겠다고 했나?

방문진의 MBC 경영평가 보고는 김재철이 휴가를 가겠다고 한 뒤인 주말 사이에 갑자기 잡힌 일정이 아니다. 방문진의 주요 연례 일정중의 하나일 정도로 공식적인 자리이다. 김재철이 이 일정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채 휴가를 가버렸다고 했다면 무엇보다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나머지 회사의 다른 일들은 지금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상태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그동안 내뱉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들을 생각하면 충분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W 변호사의 공개 질의에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혼자만 아는 비밀 ‘대북 사업’ 했나?

작년 추석연휴 당시 ‘대북 사업’ 논의를 위해 일본을 찾았다는 애초의 변명 역시 사내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김재철이 진정 ‘대북 사업’ 논의를 한 것이라면 사전에 회사 내의 관련 부서와 구성원들과 논의한 흔적이 있어야 하며 이후 사업이 추진된 진행 상황이 확인돼야 한다. ‘고정간첩’이나 ‘정권의 대북 밀사’가 아니라면 회사 내의 그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혼자 머릿속에만 간직해야 할 ‘대북 사업’이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이 다 되도록 회사의 그 어느 부서에서도 당시 김재철이 추진했던 ‘대북 사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이 없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김재철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많은 거짓말의 포로가 된 김재철

법인가드로 당시 경비를 결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대북 사업’을 위한 출장이었다면 항공료를 비롯해 김재철의 모든 일정이 법인가드로 결제되었어야 마땅하다. 숙박료만 법인가드로 결제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항공료를 비롯해 일본 체류기간의 모든 경비를 법인가드로 결제했다는 말인지 김재철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김재철은 자신이 내뱉어 놓은 수많은 거짓말의 포로가 돼 이제는 움작 달작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분명하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김재철 한 사람이 ‘공영방송 MBC’의 명예에 마구 먹칠을 해대는 불성 사나운 광경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올림픽 방송, 이번엔 뉴스데스크 ‘조작방송’ 논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정면 위반, 관련자 문책해야

첫 날부터 대형 사고를 친 ‘김재철 MBC’의 올림픽 방송이 이제는 ‘조작 방송’ 논란에까지 휘말리면서 끝 모를 바다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지난 27일 밤 <뉴스데스크>는 ‘MBC- 구글 올림픽 SNS 현장중계란 제목 하에 ‘영국 런던과 서울의 주요지점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중계한다’며 3분 넘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MBC를 한 기업 사무실로 거짓 소개

문제는 서울의 한 기업 사무실이라고 연결한 곳이 실은 MBC 6층의 ‘뉴미디어 뉴스극’ 사무실이었다는 점이다. 권재홍 앵커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한 배민진 아나운서가 “이 곳은 또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인데요, 다들 모여 계시네요”라는 말로 MBC가 아닌 다른 기업체 사무실인 것처럼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시청자들에게 분명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고 조작한 방송을 내보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일이다. 더구나 화면에 비친 ‘뉴미디어 뉴스극’ 사무실에 리액션 커트용으로 미리 인원까지 대거 동원해놓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분명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조작 방송’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심각한 사태인 것이다.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제작준칙 위반

문제의 <뉴스데스크>는 “어떤 프로그램도 시 청취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프로그램 일반준칙 15호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MBC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그 주제나 소재를 막론하고 취재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시사 보도프로그램 제작 준칙의 정확성 의무조항도 헌신적

처럼 내댈진 폭거이다.

김재철의 치적홍보 야욕과 무관치 않아

조합은 문제의 <뉴스데스크>가 있던 당일(27일) 아침 김재철 측이 <회사특보>를 통해 ‘MBC와 구글의 런던-서울 SNS 생방송’이란 제목 하에 요란한 홍보를 펼쳤던 점을 주목한다. 당시 <회사특보>에서 김재철은 ‘구글’과의 협력이 “런던 올림픽의 감동과 TV의 소셜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조작방송’ 논란에까지 휘말린 <뉴스데스크>의 방송 사고는 분명 다음 달 자신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재평가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싶어 몸이 바짝 달아 있는 김재철의 의중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게 조합의 판단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현업의 중간간부들이 ‘조작 논란’을 부를 방송을 강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작방송’ 책임자 전원, 엄중 조치해야

연유야 어떻든 조합은 문제의 <뉴스데스크>가 MBC가 시청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뉴스 사령탑인 권재홍 본부장은 ‘허리’우드 액션 날조 보도에 이어 또 다시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렸다. 올림픽 방송 보도 사령탑인 황용구 보도국장, 문제의 소식을 제작한 소관부서 책임자인 윤영무 뉴미디어 뉴스국장, 뉴스데스크 편집 책임자인 최기화 부국장장과 문호철 편집 1부장에게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조합은 ‘조작방송’ 논란을 부른 당일 사태에 대해 회사 측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회사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김재철에 영혼과 양심 팔지 않겠다”

작가 778명, <PD수첩> 대체작가 거부 선언

그로테스크한 장미란 구조물 앞에서 생경한 풍경이 펼쳐졌다. 무리지어 있는 것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작가들이 한 데 모였다. 그것도 방송이 아닌 기자회견을 위해.. 어떤 이는 ‘발벌이의 엄숙함’을 위해, 다른 이는 ‘공정방송’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누구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나왔다고 했다.

표현은 다양했지만 표적은 하나였다. 작가들이 쓴 말의 화살은 김재철과 그 하수인들을 정조준했다. 염천(炎天)의 더위에도 한기(寒氣)가 느껴졌다.

시사교양작가 778명, <PD수첩> 보이콧 결의

어제(30일) 오전 11시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사태에 대한 규탄 및 대체 작가 거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방송 4사(MBC, KBS, SBS, EBS) 및 외주제작사의 시사교양 작가 100여명은 ‘부당 해고’에 맞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 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무려 778명의 시사교양작가가 동참한 ‘<PD수첩> 대체 작가 거부’ 성명도 발표했다.

최미혜 KBS구성작가협의회 회장은 “(778명) 방송 4사는 물론 외주사, 케이빙방송 심지어 지방사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이적인 숫자”라며 “더 이상 울지 않은 일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했다.

김옥영 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방송작가들은 경영주 1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사회를 위해 일한다”며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작가의 명예”라고 ‘대체 작가 거부’의 대의를 지지했다.

<PD수첩> 작가 해고, 언론탄압의 절정

방송작가들이 최초로 기명 성명을 낸 것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편을 제작했던 김은희 작가가 검찰에 체포됐을 때였으며, 규모가 가장 큰 이번은 통산 세 번째다.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던 작가들의 성명서 중 2번이 <PD수첩>을 위해서였다. MB정권에서 <PD수첩>이 얼마나 모진 시간을 겪어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직도 정식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정재홍 작가는 “김재철 사장, 윤길용 시교국장 체제가 되면서 <PD수첩>이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하며 “4대강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줄지어 죽어나갔을 때 김철전 전 팀장은 ‘18명이 뛰가 많이 죽었다고 방송하냐?’, ‘노동자들이 한 눈 팔다 죽었겠지’ 등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3번이나 취재를 저지했다”고 아이템 검열을 폭로했다.

정 작가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집단해고에 대해 “파업이 끝나면 바로 <PD수첩>을 정상화할 수 있게 5개월을 계속 기다렸다”고 밝히며 “어떻게 사기업도 아닌 공영방송 MBC에서, 약자를 살피는 <PD수첩>에서 이런 수가 있냐”며 분노했다.

확산되는 분노, 김재철에게 부메랑으로

결의대회에는 황대준 한국PD연합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등 다양한 단체의 대표들도 참석해 <PD수첩> 작가 해고 문제가 여론의 뜨거운 이슈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드라마작가들의 지지 발언이 줄을 잇고 라디오작가, 예능작가들의 참여 문의로 쇄도하고 있어 작가들의 반 김재철 전선은 이미 대한민국 방송작가 전체 차원으로 확산된 양상이다.

김재철, 방송작가 전체 역린 건드렸다

드라마 작가들도 해고 <PD수첩> 작가에 연대 메시지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작가들이 사측을 비판하고, <PD수첩> 작가들을 지지하는 연대의 발언을 보내왔다. 작가들의 면면과 발언을 살펴보면, 김재철이 MBC를 떠나기 전엔 드라마제작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지연관계상 일단 일부 작가들의 의견만 게재한다)

* 송지나 (<로맨스계><카이트><태왕사신기><신약>)

“방송작가는 어두운 별판에서 임금님 귀의 진실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망나니와 그 종개들의 칼춤도 똑바로 보고 기록하여 외칠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함께 있겠습니다.”

* 진수완 (<경성스캔들><해를 품은 달>)

“그 동안 당신들이 힘겹게 지켜온 용기와 작가적 양심을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 김영현 (<대장금><선덕여왕><뿌리 깊은 나무>)

“그동안 PD수첩 작가들이 보여준 작가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분들의 행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또한 그나마의 계약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동료의식도 내팽개친 MBC의 이번 행태는 전 방송작가들의 연대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굿바이 솔로><그들이 사는 세상>)

“해고된 작가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나간 MBC의 명성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작가로서 작금의 치졸을 글로 써버리면 그뿐이지만, 방송의

공영성은 사대의 정신은 이대로 흘러선 안 됩니다. 방송인과 작가들은 오늘 이 사태를 또렷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동료들, 해고된 작가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길고 긴 투쟁이 되더라도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 최완규 (<허준><울인><아이티스><빛과 그림자>)

“또 한 번 상식이 무너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비상식적인 폭거에 크게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이 승리하여 잃어버린 공정방송과 무너진 상식이 제 자리를 찾기를 기원하며 투쟁을 지지합니다.”

* 장항준 (<라이터를 켜라><위기일발 풍년빌라><싸인>)

“김재철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MBC에서 해고되어야 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김재철 측의 치졸한 탄압책동, 점입가경

사상 초유 1층 로비 봉쇄 폭거, 침묵시위 징계 협박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투쟁에 대한 김재철 측의 치졸한 탄압이 갈수록 더욱 더해가고 있다. 김재철 측은 조합의 월요 점심 총회를 봉쇄하기 위해 어제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본사 1층 로비를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청정등을 배치해 조합원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직원들이 1층 로비 대신 텔런트 로비 옆 쪽문을 통해 출입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프로그램 출연자들과 MBC를 방문한 손님들이 난데없는 통행 제한 조치에 당황해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1층 로비의 출입을 막은 것은 MBC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난 5월 16일 기자총회 봉쇄를 위한 보도국 폐쇄 조치와 함께 김재철이 저지른 전무후무한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보도국 침묵시위 징계하겠다” 협박

이에 앞서 오전 8시부터 보도부문을 조합원 백여 명은 보도국 편집부 부

근에 도열한 채 업무 복귀이후 두 번째인 월요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김재철 측은 보도부문을 조합원들의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협박하는 것으로 졸렬한 탄압 책동을 노골화했다. 침묵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김재철 측의 징계 방침은 보도국의 오후 편집회의를 통해 각 부서에 하달됐다. 김재철 측은 지난 주 보도국에 새로 설치한 HD급 CCTV에 촬영된 채증 자료를 기초로 개인별로 징계를 경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합, 구성원 중지 모아 단호히 대응할 것

조합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김재철 측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탄압 책동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로잡된 최후에 발악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규나 단체협약, 노동법 위반은 물론 스티커 불법 철거처럼 절도 혐의까지 무릅쓴 김재철 측의 파렴치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조합은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완봉’ 숨기려는 김재철의 유체이탈 인터뷰

어제(30일) 한 일간지에 실린 김재철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하나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조금씩 진화하고 바뀌는 김재철의 거짓말

김재철은 일간지 인터뷰에서 “4.11 선거방송 직전,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등 주요국장의 2배수 추천제를 받으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재철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어 미완의 ‘3류 창작소설’이라 할 만하다. 김재철은 지난 4월 하순의 회사 공식 행사에서는 “자신이 총선 전에 주요 국장 추천제를 제안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마구 말을 꾸며대면서 거짓말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철은 며칠 전에도 노조가 몇 가지 요구를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조합은 ‘되진 대상’에 불과한 김재철에게 그 어떠한 제안을 한 적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소도 웃을 헛소리 “사실은 진보

적인 사람”

지나가던 소도 웃을 헛소리도 몇 군데 있었다. “노조에 공격당해서 그렇지 사실은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우겨낸 부분이다. 안철수 교수의 SBS <힐링캠프> 출연에 대해 분하다고 한 부분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한다. 작년 10.26 재보선 당시 극심했던 불공정 편파보도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축소 보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 때 노조위원장을 할까 고민했다는 얘기 역시 사내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김재철에게 노조위원장을 권유하거나 그를 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아무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김재철을 노조위원장 감으로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MBC를 노명방송이라고 공격한 건 대표이사 사장인 김재철이 스스로를 부정한 언행이다. “저는 김재철 아녜요”라고 한 것과 흡사한 상황이다. 공영방송 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MBC 민영화를 검토할 만하다고 한 건 명백한 해사행위이다.

그의 인터뷰를 읽는 일은 분명 MBC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큰 고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재철의 일간지 등장 자체가 내면의 ‘완봉(완전 멘탈붕괴)’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코스프레였다. 점이 드러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